

특집

통일 필요성 인식에서의 거주지 효과*

서민진 (서울대)**
김병연 (서울대)
이정민 (서울대)***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거주지의 평균 인식이 개인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추정 결과 개인의 인식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평균 인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지 외부 접경지역의 인식과 개인의 인식 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또한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 두 지역이 서로 다른 광역권일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가 통일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에 관한 다른 인식 변수보다 거주지 평균 인식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거주지역의 평균 인식이 관련이 있음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 경로 중 하나로 사회적 영향,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 행동이나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통일의 필요성, 사회적 영향, 거주지 효과, 통일의식조사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4.2.202212.79>

*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기반구축사업과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NRF-2020S1A3A2A0210419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입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jmlee90@snu.ac.kr)

I. 서론

그동안 통일 필요성 인식에 관한 대부분의 관심은 한국 국민 전체의 통일 필요성 지지도에 집중되어왔다. 그 기초자료로서는 2007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통일연구원 등의 설문조사 결과가 주로 이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국민 전체의 통일 필요성 지지도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1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국민의 비중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우리 국민 전체 중 44.6%에 머물렀다.¹⁾ 이 수치는 2007년의 63.8%보다 20% 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지난 15년 동안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국민 전체의 자료를 보다 세분화하여 지역이나 연령별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도 존재한다.²⁾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통일 필요성 인식의 양상을 파악하고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시기 또는 집단별 통일 필요성 인식을 집계변수 단위로 비교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일 지지도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기

-
- 1) 김범수 외 공저, 『(2021)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31쪽.
 - 2)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평화연구』 제22권 1호 (2014), 167~206쪽; 김병조,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 평화』 제7권 2호 (2015), 3~41쪽; 차재권,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갈등이 통일 및 대북 인식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83호 (2017), 215~238쪽; 구분상·최준영, 「통일의식에서의 영호남 지역 차에 대한 경험적 분석」 『분쟁해결연구』 제17권 2호 (2019), 107~135쪽; 권재기, 「한국 국민의 통일의식 프로파일 탐색 및 예측」 『통일인문학』 제83집 (2020), 47~83쪽.

위해서는 통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연구는 대부분 집계변수를 이용한 분석에 머물렀을 뿐 개인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미시적으로 통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개인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예로 들면 김병연은 원자료를 가상 패널모형으로 전환하여 청년세대와 다른 세대의 통일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³⁾ 동일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김학재는 연령과 소득수준, 이념, 지역 등 다양한 변수가 통일의 필요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⁴⁾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이내영 및 그 외 대부분의 연구와 같이 특정한 변수에 주목하여 통일인식을 분석하기보다 여러 변수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⁵⁾

이 연구는 통일 필요성 인식에 있어 사회적 영향이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다. 타인의 인식이나 믿음,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한 개인의 인식이나 믿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영향, 동료효과, 이웃효과 등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⁶⁾ 이는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⁷⁾⁸⁾ 만약 사회

3) 김병연, 「청년세대의 통일인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2019), 143~169쪽.

4) 김학재, 「통일·북한 여론과 정당지지 변화로 본 지속가능한 통일 정책의 조건」, 김범수 외, 『(2021)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206~241쪽.

5)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인식의 결정요인」, 167~206쪽.

6)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개인의 행동이 자신이 속한 준거집단의 평균적 행동에 따라 변화하거나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비슷하게 행동하게 되는 경향을 동조화 현상이라고 한다.

7) Huckfeldt, R. Rober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Neighborhood Social Contex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3, no. 3 (Aug. 1979), pp. 579-592; Mayer, Susan and Christopher Jencks, "Growing Up in Poor Neighborhoods: How Much Does It Matter?" *Science*, vol. 243, no. 4897 (Mar. 1989), pp. 1441-1445;

적 영향이 존재하고 구성원 간 정보의 전달 혹은 집단 내 압력과 같이 이러한 영향이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의 사회적 인식의 형성 요인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⁹⁾

이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를 이용해 거주지가 통일 필요성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사회적 영향의 경로는 가정, 이웃, 직장, 언론 등 다양하다. 이 연구는 거주지를 준거집단으로 이해하고 이 준거집단의 사회적 영향이 통일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 존재하는지 연구한다. 거주지, 즉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안에서의 사회적 상호 작용은 더욱 활발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다음의 두 연구에서도 경

Glaeser, Edward L., Bruce Sacerdote and José A. Scheinkman, "Crime and Social Interaction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1, no. 2 (May 1996), pp. 507-548; Manski, Charles F. "Economic Analysis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4, no. 3 (Sep. 2000), pp. 115-136.

- 8) Manski에 따르면 집단 구성원들이 비슷하게 행동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설은 개인의 행동은 집단의 행동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의 행동이 집단 구성원들의 외생적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이다. 세 번째 가설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행동 또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약 첫 번째 가설과 같이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집단 구성원 중 일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다른 구성원의 행동까지 간접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bid.
- 9) Durlauf, Steven N., "Neighborhood Effects" in j. Vernon Henderson, Jacques-François Thisse, ed., *Handbook of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North Holland, 2004), pp. 2173-2242; Campos, Camila F. S., Shaun Hargreaves Heap and Fernanda Leite Lopez de Leon, "The political influence of peer groups: experimental evidence in the classroom," *Oxford Economic Papers*, vol. 69, no. 4 (Oct. 2017), pp. 963-985; Duflo, Esther and Emmanuel Saez, "The Role of Information and Social Interactions in Retirement Plan Decisions: Evidence from a Randomized Experi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8, no. 3 (Aug. 2003), pp. 815-842.

험적으로 확인되었다. Gentzkow and Shapiro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 보수성향의 뉴스나 사람을 접하는 정도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 보수성향의 뉴스나 사람을 접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¹⁰⁾ 그 결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뉴스 매체를 접할 때보다 이웃, 직장동료, 가족과 같은 대면 교류 시에 대체로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erez-Truglia는 처음에는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발생한 지역별 차이가 그 이후 지역 내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심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¹¹⁾

이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문헌에 기여하고 있다. 첫째, 개인별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은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지역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거나 지역별 더미를 이용해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는 지역별 차이 중 개인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파악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나타나는 범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통일 필요성 인식에 사회적 영향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관련 연구를 통해 통일 필요성 인식에 대한 사회적 영향의 존재와 함께 발생 경로, 발생 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관련 정책 설계 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거주지와 통일인식 사이의 상관관계뿐 아니라 거주지 이동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인과관계에 근접한 수준까지 분석을 심화한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한 반면 이 연구는 한 지역

¹⁰⁾ Gentzkow, Matthew and Jesse M. Shapiro, "Ideological Segregation Online and Offlin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6, no. 4 (Nov. 2011), pp. 1799-1839.

¹¹⁾ Perez-Truglia, Ricardo, "Political conformity: Event-study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100, no. 1 (Mar. 2018), pp. 14-28.

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통일 필요성 지지도에 생긴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설명변수를 원인, 종속변수를 결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통일 필요성 지지에 있어 사회적 영향의 확인은 관련 정책이 효과를 미칠 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 만약 통일 필요성 인식이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개개인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거나 여론 형성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과 그의 거주지 집단의 평균 인식 간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영향이 통일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¹²⁾ 더 나아가 거주지 주변의 평균 인식 및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집단의 영향 및 집단에 속해 있는 기간에 따라 통일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¹³⁾ 즉 현 거주지와 그 외 지역의 평균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하고 거주지 이동 경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현 거주지 거주기간의 차이 및 과거 거주지의 영향 등을 확인함으로써 거주지를 기준으로 형성된 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영향이 개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유추한다.¹⁴⁾

12)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거주지는 이웃효과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른 거주자의 인식에 의한 직접적 영향과 거주지의 환경과 같은 외생적 특성의 영향을 명확히 분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13) 거주지 평균 인식과 개인의 인식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거주지 이동 전후 통일 필요성 인식을 비교해야 하겠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이러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14)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사회적 영향이 동일한 생활환경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상호교류에서 기인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거주지 주변의 평균 인식은 거주지의 평균 인식보다 상관관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5세 이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의 경우에 그 이전부터 거주해 온 사람들에 비해 현 거주지 거주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통일 필요성 인식의 결정 요인 및 거주지 이동을 이용해 이웃효과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와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IV장과 V장에서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거주지 평균 인식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한다. VI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통일의식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통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연령(세대), 성별, 학력, 소득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물론 거주지, 민족적 정체성 및 유대감, 통일의 효용, 정치성향, 주변국 인식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통일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¹⁵⁾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규범이나 문화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체화되었을 가능성을 미루어 볼 때 본인의 인식과 거주지의 평균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15) 김병조,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3~41쪽;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167~206쪽; 김영기, 「남한사회의 남북통일의 필요성 인식의 시계열적 변화와 영향 요인 차이」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8호 (2018), 707~717쪽; 구분상·최준영, 「통일의식에서의 영호남 지역 차에 대한 경험적 분석」, 107~135쪽; 김병조,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통일정책에 대한 한 제언」 『통일과 평화』 제1권 2호 (2009), 63~102쪽; 조진만·한정택,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6권 1호 (2014), 149~177쪽; 백대현·이재완, 「통일의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통일편익과 비용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2호 (2015), 205~223쪽; 최우선 외 공저, 「통일인

이내영은 통일의식의 변화와 균열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통일의 필요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치성향, 민족 정체성, 기대이익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점차로 추가하는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연령, 성별 및 이념성향, 지지정당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통일이 국가 및 개인에 이익에 영향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통일 필요성 인식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¹⁶⁾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한 논문으로 구본상·최준영은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영호남의 지역 차가 통일의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태도와 통일 준비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해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고 있다.¹⁷⁾ 먼저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호남권, 대구-경북(대경권), 부산-울산-경남(동남권)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이용하였고, 연령, 성별, 소득, 교육수준, 지역(17개시도), 정치성향, 현 정부지지, 정당선호, 통일에 대한 기대효용을 통제변수로 이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호남권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통일 준비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이며, 대경권과 동남권의 경우 통일 관련 인식이 서로 다르게 변화하고 동남권이 정치 및 안보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영남권 내 통일의식에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다.

권재기는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용해 ‘60대 이상 저학력·저소득 집단군’, ‘진보성향 고학력·고소득의 북한 우호감이 높은 집

식 차이의 원인」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2016), 84~112쪽; 구본상,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과 통일에 대한 태도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제30권 2호 (2020), 169~196쪽.

16)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167~206쪽.

17) 구본상·최준영, 「통일의식에서의 영호남 지역 차에 대한 경험적 분석」, 107~135쪽.

단군’, ‘보수성향 고학력·고소득의 북한 적대감이 높은 집단군’, ‘행복도·가계상태 만족도가 낮은 집단군’으로 분류하였다.¹⁸⁾ 각 집단은 통일 필요성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며 집단별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따라 통일의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거주지의 변화를 통해 이웃의 영향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외국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며 그 결과는 정책이나 관심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Oreopoulous는 토론토 내에 위치한 여러 저소득층 주택단지가 서로 다른 주변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이용해 거주지의 환경이 장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웃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¹⁹⁾ 저소득층 주택단지 중 일부는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반면, 다른 일부는 중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 재정 상태 및 현재 생활 여건을 기준으로 매겨진 점수에 따라 가장 점수가 높은 가구부터 공실이 생기는 주택단지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 가구는 자신들의 집을 선택할 수 없었다.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과 중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단지에 거주했던 청소년의 성인기 임금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체 노동시장 성과의 변동량은 이웃간 차이보다는 가족 간 차이를 통해 더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udwig et al.은 미국의 Moving to Opportunity 사회실험을 이용해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중 추첨을 통해 빈곤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

18) 권재기, 「한국 국민의 통일의식 프로파일 탐색 및 예측」, 47-83쪽.

19) Oreopoulos, Philip, "The Long-Run Consequences of Living in a Poor Neighborhood,"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8, no. 4 (Nov. 2003), pp. 1533-1575.

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은 가족과 받지 못한 가족의 다양한 장기적 성과를 비교했다.²⁰⁾ 그 결과 성인의 경제적 성과 및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BMI나 당뇨와 같은 몇 가지 건강 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성과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나 여성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다.

Chetty and Hendren은 관측 데이터에서 존재하는 지역별 세대 간 이동 정도의 차이 중 이웃의 인과효과로 설명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²¹⁾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서로 다른 나이에 거주지를 이동한 아이들을 비교하여 이들의 성인기 소득이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한 아이들의 성인기 소득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소득을 통제했을 때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한 아이들의 성인기 평균 소득순위가 1 퍼센타일 높은 지역에서 1년을 더 거주하는 것은 거주지를 이동한 아이의 성인기 소득순위를 약 0.04퍼센타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효과는 주로 유년기 환경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거주지를 이동한 나이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Perez-Truglia는 미국의 선거운동 기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정치적 동조화 현상, 즉 유사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수일 때 정치 참여가 증

20) Ludwig, Jens, Greg J. Duncan, Lisa A. Gennetian, Lawrence F. Katz, Ronald C. Kessler, Jeffrey R. Kling, and Lisa Sanbonmatsu, "Long-Term Neighborhood Effects on Low-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Moving to Opportun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3, no. 3 (May 2013), pp. 226-231.

21) Chetty, Raj and Nathaniel Hendren, "The Impacts of Neighborhoods on Intergenerational Mobility I: Childhood Exposure Effec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33, no. 3 (Aug. 2018), pp. 1107-1162.

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²²⁾ 먼저 거주지를 기준으로 준거 집단을 설정한 뒤 거주지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전체 선거운동 기부자 중 민주당 기부자의 비율이 기부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 대선 당시 민주당에 비슷한 금액을 기부하고 민주당 기부자 비율이 비슷한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 중 201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과 그 이후에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비교한 결과, 정치적 동조화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즉 201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거주지를 이동해 실제로 새로운 거주지역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만 이동한 거주지의 민주당 기부자 비율이 2012년 민주당 기부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 인접 지역의 민주당 기부자 비율은 유의한 영향이 없고 이동한 거주지에서 머무른 기간이 길어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동조화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근거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정치적 동조화의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Ⅲ. 데이터 및 분석방법

1. 데이터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의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매년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²²⁾ Perez-Truglia, "Political conformity: Event-study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pp. 14-28.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관련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이다. 설문 문항은 통일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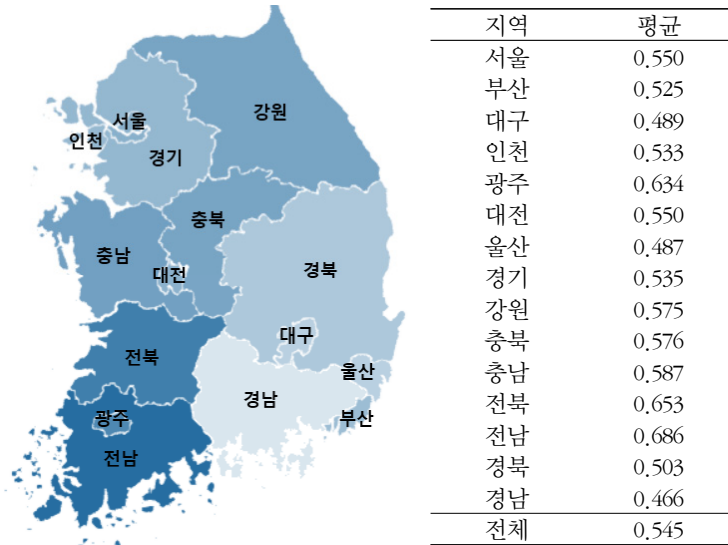
통일 필요성 인식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매우 필요하다” 혹은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1의 값을 가지고 그 외에는 0의 값을 가지도록 변환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시 정의하여 이용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거주지의 인식이 거주자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평균 인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통일의식조사 자료에 존재하는 응답자의 조사 당시 거주지 정보를 이용하면 각 지역별 평균 인식을 구할 수 있다. 현 거주지 정보는 16개시도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로, 세종은 충남에 포함되어 있다. 통일의식조사에는 또 하나의 거주지 관련 정보로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가 존재하는데, 응답자들은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6개시도 및 북한, 외국이라는 보기 중에서 가장 오래 거주했던 하나의 지역을 선택하였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등 기존 연구에서 통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언급된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응답을 통제변수로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은 17,532명으로 종속변수인 통일 필요성 인식과 현재 및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과 같은 통제변수에 대한 응답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만 표본에 포함시켰

〈그림 1〉 지역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다. 응답자의 통일 필요성 인식이 현재 거주지의 인식 및 주변 지역의 인식과 각각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비교해보고자 했기 때문에 조사 당시 인접한 주변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되었으며 과거 거주지(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가 북한 또는 외국인 경우도 제외되었다.

먼저 통일 필요성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표본의 약 55퍼센트는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혹은 약간 필요하다고 답했다(〈그림 1〉).²³⁾ 그러나 이 비율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해 약 47퍼센트에서 69퍼센트 사이의 값을

²³⁾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 평균 및 지역별 평균은 모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다. 이때 사용한 가중치는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일의식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표준화 가중치이다. 김범수 외 공저, 『(2021)통일의식조사』, 258쪽.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 필요성 인식이 높은 지역은 전북과 전남, 광주로 60퍼센트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 울산, 경남은 상대적으로 통일 필요성 인식이 낮아 50퍼센트 미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기초통계량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 인구학적 특성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약 45세,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약 40세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연령이 평균적으로 더 높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존재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남성의 비율은 약 56퍼센트인데 비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남성의

〈표 1〉 기초통계량

| 변수 |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 | 통일이 필요하다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연령 | 40,235 | 13,231 | 44,888 | 13,458 |
| 성별(남성) | 0.441 | | 0.559 | |
| 학력(비율) | | | | |
| 고등학교 졸업 미만 | 0.079 | | 0.113 | |
| 고등학교 졸업 | 0.450 | | 0.436 | |
| 대학교 재학 이상 | 0.471 | | 0.452 | |
| 가구소득(비율) | | | | |
| 200만원 미만 | 0.111 | | 0.132 | |
| 200~299만원 | 0.204 | | 0.222 | |
| 300~399만원 | 0.291 | | 0.288 | |
| 400만원 이상 | 0.395 | | 0.357 | |
| 관측치 수 | 7,951 | | 9,581 | |

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 모든 값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비율은 약 44퍼센트에 불과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 학력의 경우 고졸의 비중은 각각 약 44퍼센트, 45퍼센트이며 대학교 재학 이상의 비중은 각각 약 45퍼센트, 47퍼센트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 비중이 좀 더 높다. 가구소득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모두의 저축, 임대, 이자소득 등을 포함한 세금 공제 이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으로 300만 원 ~ 399만 원인 가구의 비중은 비슷하나 4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각각 약 36퍼센트, 39퍼센트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 가구소득이 높은 응답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통일 필요성 인식에 있어 개인의 인식과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 인식 간에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통일 필요성 인식의 형성에 사회적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집단이 필요한데, 개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을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준거집단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분석에 앞서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가용한 자료 내에서 적절한 준거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필요성 인식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자주 교류하게 되면서 인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거주지를 준거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일 필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본인을 제외한 거주지 평균 인식 사이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통일 필요성 인식은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북한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권 또는 정책이 바뀌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시기별 각 지역의 평균 인식을 이용하여 지역 간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시기에 따른 평균 인식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였다.²⁴⁾ 다음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주지의 평균 인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이 결과의 강고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거주지 외 주변 지역의 평균 인식과의 관련성을 추정한 뒤 거주지 인식과의 상관관계와 비교해보았다. 즉 거주지역이 인접하지 않을 때는 상호 교류 가능성이 낮아 다른 사람의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기회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현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통일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새롭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그들의 인식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특정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사회적 영향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 거주지와 현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현 거주지 인식과의 관련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회귀식은 다음과 같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 는 개인, r 은 응답자가 16개 시도 기준으로 응답한 거주지, t 는 조사연도를 의미한다.

24) 김병조에 따르면 통일대박론과 같이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나 새로운 통일정책의 발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조,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3~41쪽.

$$y_{irt} = \alpha + \beta(residence)_{rt} + \delta(adjacent)_{rt} + \gamma X_{irt} + \lambda_t + \mu_r + \epsilon_{irt}$$

종속변수인 y_{irt} 는 개인 i 의 통일 필요성 인식으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약간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 1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residence)_{rt}$ 는 본인을 제외하고 t 년도 조사에 거주지 r 에 거주하고 있었던 응답자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가중평균²⁵⁾이다. 이는 지역 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로 개인 i 가 마주하게 되는 거주지의 통일 필요성 인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djacent)_{rt}$ 는 t 년도 응답자 중 거주지 r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의 가중평균이다. 이때 주변지역은 거주지 r 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주변지역은 인천 및 경기이고 강원도의 주변지역은 경기, 충북, 경북이 된다.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추정된 β 와 δ 값은 각각 거주지와 주변지역에서 통일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해당 지역 거주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가능성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의미한다. X_{irt} 는 개인단위 통제변수로 연령, 연령의 제곱, 성별, 학력,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고려한다. 성별은 남성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와 대학교 재학 이상인 경우를 나타내는 두 개의 더미변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은 200 ~ 299만 원, 300 ~ 399만 원, 400만 원 이상의 구간을 나타내는 세 개의 더미변수를 이용해 통제하였다. λ_t

25) 이때 사용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각 응답자의 응답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한 더미변수이다. 가중치는 통일의식조사에서 제공하는 표준화 가중치로, 표본자료의 대표성 유지를 위해 제공되며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보정 해주는 역할을 한다. 김범수 외 공저, 『(2021)통일의식조사』, 258쪽.

는 연도 고정효과, μ_r 은 지역 고정효과로 관찰 불가능한 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별, 연도별 고유한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이용하였다. 추정 오차는 하나의 지역을 조사 시기별(지역*연도)로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도록 클러스터링하여 구하였다.²⁶⁾

IV.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개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평균 인식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평균에서의 한계효과를 계산하면 그 관련성은 거주지역 평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0.35%포인트 증가하는 정도이다. 또한 남성이거나, 학력이 대학교 재학 이상이거나,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인접한 주변지역의 인식과의 상관관계는 그 값이 더 작고 유의하지 않다. 현 거주지 인식과 주변지역의 인식의 영향을 함께 추정했을 때도 현 거주지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더 크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통일 필요성 인식이 주로 거주지 내에서 발생하는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26)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구학적 특성 외에 정치 성향, 북한에 대한 태도, 민족적 정체성 및 유대감, 통일에 대한 기대효용 등에 따라라도 통일 필요성 인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일 필요성 인식 및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 필요성 인식은 이들 변수들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조금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지역의 평균적 인식 간 관련성

| 변수 | 통일의 필요성 | | |
|--------------------|--------------------------------|-----------------------------|--------------------------------|
| | (1) | (2) | (3) |
| 거주지역 평균 | 1.437*** (0.293) [4.207] | | 1.430*** (0.294) [4.178] |
| 주변지역 평균 | | 0.371 (0.449) [1.450] | 0.245 (0.304) [1.277] |
| 연령 | 0.023*** (0.009) | 0.023*** (0.009) | 0.023*** (0.009) |
| 연령제곱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 성별(남성) | 0.477*** (0.036) | 0.473*** (0.036) | 0.477*** (0.036) |
| 고등학교 졸업(더미) | 0.107 (0.072) | 0.105 (0.072) | 0.107 (0.072) |
| 대학교 재학 이상(더미) | 0.442*** (0.079) | 0.443*** (0.079) | 0.442*** (0.079) |
| 가구소득 200~299만원(더미) | 0.090 (0.060) | 0.087 (0.061) | 0.090 (0.060) |
| 가구소득 300~399만원(더미) | 0.060 (0.063) | 0.060 (0.064) | 0.060 (0.063) |
|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더미) | 0.007 (0.066) | -0.002 (0.067) | 0.007 (0.066) |
| Constant | -2.020*** (0.261) | -1.328*** (0.323) | -2.171*** (0.308) |
| 지역 고정효과 | Y | Y | Y |
| 연도 고정효과 | Y | Y | Y |
| Observations | 17,532 | 17,532 | 17,532 |

주: 소괄호안의 값은 (조사시기*지역) 기준으로 클러스터링한 강건 표준오차. 대괄호 안의 값은 오즈비. *** p<0.01, ** p<0.05, * p<0.1. 주변지역은 거주지역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의미.

〈표 2〉에서 주변지역은 현재 거주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었으나 이와 같은 정의를 이용하게 되면 주변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그 결과 개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의 관련성이 낮게 추정되었을 수 있다. 또한 〈그림 1〉에 따르면 동일 광역권 내 지역들은 통일 필요성 인식이 대체로 비슷한 반면 광역권 간 통일 필요성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광역권 간 뚜렷한 차이에 사회적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을 동일 광역권 내에 위치한 다른 지역으로 새롭게 정의한 뒤 주변지역 및 현 거주지 평균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결과 〈표 2〉의 결과와 유사하게 거주지역의 평균 인식과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사회적 영향이 16개 시도 단위가 아닌 광역권 단위의 지역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동일 광역권 내의 다른 지역으로 정의된 주변지역과의 관련성도 유의하게 나타났을 것이므로 이 결과를 통해 사회적 영향은 주로 16개 시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²⁷⁾

다음으로는 현재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지역의 평균 인식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현 거주지에 총 거주한 기간 또는 거주지 이동 시기 등의 정보가 필요하지만 통일의식조사에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있어 대신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에 대한 응답을 과거 거주지 정보로 이용하였다. 과거 거주지와 현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최소 한 번의 거주지 이동이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두 시기의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비해 현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과거 거주지와 현 거주지의 일

²⁷⁾ 강원도의 경우 동일 광역권 내에 다른 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기준에 정의된 주변지역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강원도를 제외하고 동일한 분석을 시행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치여부에 따라 거주지 이동여부를 정의한 뒤 각각의 표본에 대해 동일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3〉).

거주지 이동이 없었던 표본만으로 회귀식을 추정하면 이전의 결과와 비슷하게 현 거주지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만, 거주지 이동이 있었던 응답자들만으로 구성된 표본을 이용해 추정하면 개인 인식과 거주지 인식의 상관관계가 낮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현 거주지에 머무른 기간이 짧을수록 지역의 평균 인식의 영향이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거주지를 이동한 경험이 있는 표본은 과거 거주지의 위치에 따라 다시 과거 거주지와 현 거주지가 동일한 광역권에 속해 있는 광역권 내 이동과 과거 거주지와 현 거주지가 다른 광역권에 속해 있는 광역권 간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광역권에 속한 지역들 보다는 서로 다른 광역권에 속한 지역들 간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 인식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에 과거 거주했던 지역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광역권 내 이동과 광역권 간 이동 각각에 대해서도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에 따르면 광역권 내 이동으로 분류된 표본에서는 현 거주지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이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작지만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역권 간 이동이 있었던 표본에서는 현 거주지 인식과 개인의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 3〉 거주지 이동 경험에 따른 차이

| 변수 | 이동하지 않은 경우 | | | 이동한 경우 | | |
|--------------------|--------------------------------|-----------------------------|--------------------------------|-----------------------------|-----------------------------|-----------------------------|
| | (1) | (2) | (3) | (4) | (5) | (6) |
| 거주지역 평균 | 1,774*** (0,345) [5,893] | | 1,767*** (0,347) [5,851] | 0,659 (0,450) [1,933] | | 0,658 (0,450) [1,932] |
| 주변지역 평균 | | 0,484 (0,586) [1,623] | 0,376 (0,441) [1,456] | | 0,075 (0,627) [1,078] | 0,023 (0,587) [1,023] |
| 연령 | 0,016 (0,011) | 0,016 (0,011) | 0,016 (0,011) | 0,037*** (0,013) | 0,037*** (0,013) | 0,037*** (0,013) |
| 연령제곱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 성별(남성) | 0,483*** (0,039) | 0,475*** (0,038) | 0,483*** (0,039) | 0,476*** (0,060) | 0,477*** (0,060) | 0,476*** (0,060) |
| 고등학교 졸업(더미) | 0,133 (0,087) | 0,129 (0,087) | 0,133 (0,088) | 0,061 (0,107) | 0,059 (0,107) | 0,061 (0,107) |
| 대학교 재학 이상(더미) | 0,416*** (0,100) | 0,418*** (0,099) | 0,417*** (0,100) | 0,477*** (0,111) | 0,477*** (0,111) | 0,477*** (0,111) |
| 가구소득 200~299만원(더미) | 0,112 (0,072) | 0,104 (0,073) | 0,113 (0,072) | 0,063 (0,096) | 0,065 (0,096) | 0,063 (0,096) |
| 가구소득 300~399만원(더미) | 0,134* (0,078) | 0,130* (0,078) | 0,135* (0,078) | -0,046 (0,093) | -0,043 (0,093) | -0,046 (0,093) |
|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더미) | 0,035 (0,079) | 0,020 (0,080) | 0,035 (0,079) | -0,029 (0,104) | -0,030 (0,105) | -0,029 (0,104) |
| Constant | -2,187*** (0,342) | -1,351*** (0,439) | -2,422*** (0,419) | -1,685*** (0,424) | -1,309*** (0,470) | -1,699*** (0,545) |
| 지역 고정효과 | Y | Y | Y | Y | Y | Y |
| 연도 고정효과 | Y | Y | Y | Y | Y | Y |
| 관측치 수 | 10,833 | 10,833 | 10,833 | 6,699 | 6,699 | 6,699 |

주: 소괄호안의 값은 (조사시기*지역) 기준으로 클러스터링한 강건 표준오차. 대괄호 안의 값은 오즈비. *** p<0.01, ** p<0.05, * p<0.1. 주변지역은 거주지역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의미.

〈표 4〉 동일 광역권 내 이동과 광역권 간 이동 비교

| 변수 | 동일 광역권 내 이동 | | | 광역권 간 이동 | | |
|--------------------|-------------------------------|------------------------------|-------------------------------|------------------------------|-----------------------------|------------------------------|
| | (1) | (2) | (3) | (4) | (5) | (6) |
| 거주지역 평균 | 1,337** (0,548) [3,808] | | 1,350** (0,549) [3,856] | -0,300 (0,669) [0,741] | | -0,301 (0,688) [0,740] |
| 주변지역 평균 | | -0,260 (0,906) [0,771] | -0,382 (0,831) [0,683] | | 0,054 (1,131) [1,055] | -0,016 (1,183) [0,984] |
| 연령 | 0,024 (0,019) | 0,024 (0,019) | 0,023 (0,019) | 0,051*** (0,020) | 0,051*** (0,020) | 0,051*** (0,020) |
| 연령제곱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 성별(남성) | 0,383*** (0,080) | 0,385*** (0,080) | 0,382*** (0,080) | 0,546*** (0,075) | 0,545*** (0,075) | 0,546*** (0,075) |
| 고등학교 졸업(더미) | 0,049 (0,171) | 0,048 (0,169) | 0,051 (0,170) | 0,088 (0,136) | 0,089 (0,136) | 0,088 (0,136) |
| 대학교 재학 이상(더미) | 0,428** (0,174) | 0,429** (0,174) | 0,428** (0,175) | 0,536*** (0,142) | 0,536*** (0,141) | 0,536*** (0,141) |
| 가구소득 200~299만원(더미) | 0,248* (0,137) | 0,243* (0,137) | 0,247* (0,137) | -0,085 (0,132) | -0,087 (0,132) | -0,085 (0,132) |
| 가구소득 300~399만원(더미) | 0,136 (0,139) | 0,131 (0,139) | 0,137 (0,139) | -0,197* (0,113) | -0,200* (0,113) | -0,197* (0,113) |
|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더미) | 0,109 (0,134) | 0,099 (0,134) | 0,111 (0,135) | -0,151 (0,137) | -0,153 (0,137) | -0,151 (0,137) |
| Constant | -1,890*** (0,618) | -0,847 (0,758) | -1,650** (0,822) | -1,348** (0,562) | -1,572* (0,811) | -1,338 (1,014) |
| 지역 고정효과 | Y | Y | Y | Y | Y | Y |
| 연도 고정효과 | Y | Y | Y | Y | Y | Y |
| 관측치 수 | 3,112 | 3,112 | 3,112 | 3,587 | 3,587 | 3,587 |

주: 괄호안의 값은 (조사시기*지역) 기준으로 클러스터링한 강건 표준오차. 대괄호 안의 값은 오즈비. *** p<0,01, ** p<0,05, * p<0,1. 주변지역은 거주지역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의미.

요약하면, 현 거주지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개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 영향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지, 현 거주지 외에 인접 지역 또는 유사한 통일 필요성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도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변지역 인식과의 상관관계도 함께 추정한 결과 개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은 주로 현 거주지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 거주지로 정의된 16개 시도 지역 내의 요인이 개인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를 과거 거주지 정보로 이용하여 거주지 이동 경험 및 과거 거주지 위치에 따라 현 거주지 인식과의 관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결과, 과거 거주지와 현 거주지가 일치하여 거주지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정의된 표본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거주지 이동 경험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낮아지고 특히 과거 거주지와 현 거주지가 서로 다른 광역권에 속해 있는 경우 개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현 거주지 인식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들은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통해 몇 가지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거주지를 이동한 경험이 존재할 때 현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면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표본에서 현 거주지 평균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은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 다시 말해 거주지에 노출된 기간 따라 해당 지역 내 평균 인식으로부터 받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동일 광역권 내에 위치한 다른 지역은 다른 광역권에 속한 지역보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거주지역이 동일 광역권에 위치한 응답자들보다 다른 광역권에 위치한 응답자들에게서 현 거주지 평균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더 낮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과거 거주지에서 받은 영향이 계속 남아 통일 필요

성 인식에 영향을 주어 현 거주지 인식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V. 거주기간의 영향과 한국 사회 인식과의 비교

1.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의 평균적 인식과의 관련성

통일인식조사에는 현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이나 거주지 이동 경로, 시기 등과 같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거주기간에 따라 거주지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거주지를 이동한 경험이 존재하는 경우 현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와 현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거주지 이동 여부를 정의한 뒤 각각의 경우에 지역의 평균 인식과의 관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²⁸⁾

이상의 분석 방법은 통일 필요성 인식의 형성 시기와 관련된다. 만약 통일 필요성 인식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존재하고 그 시기가 지난 후에는 인식이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기에 거주한

²⁸⁾ 이렇게 추정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가 현 거주지와 일치하는 것이 현 거주지에 계속해서 머물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 정보는 16개시도 기준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 내에서의 이동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15세 이후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조사 시기 이전에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다. 통일인식조사는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거주지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정의된 응답자 보다 이동이 있었던 응답자가 현 거주지에 더 오래 머물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역의 영향으로 인해 거주지 이동 경험이 있는 표본에서 현 거주지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동한 경험이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추정해 보았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응답자가 과거 거주지에 머무르던 당시의 평균 인식을 이용해야 하지만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 시기 당시 과거 거주지의 인식을 이용하였다.²⁹⁾

〈표 5〉에 따르면 과거 거주지의 인식도 개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15세 이전에서의 최장기 거주지는 통일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심리학에는 개인의 사회적 인식은 주로 18세에서 25세 사이에 형성된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결과는 이 주장과 일맥상통한다.³⁰⁾

²⁹⁾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통일 필요성 인식의 지역 간 격차는 계속해서 존재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다만 결과를 해석할 때 과거 거주지에 머무르던 시기에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거나 북한과 관련된 큰 사건이 있었다면 조사 시기 당시의 평균 인식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³⁰⁾ Krosnick, Jon A. and Duane F. Alwin, "Aging and susceptibility to attitud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no. 3 (Sep. 1989), pp. 416-425. 〈표 5〉의 결과는 15세 이전 시기가 개인의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났을 수도 있다. 즉 우리가 사용한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를 이용한 위의 결과로는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럴 개연성은 제시한다.

〈표 5〉 개인의 인식과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의 평균적 인식의 관련성

| 변수 | 전체 이동 | 동일 광역권 내 이동 | 광역권 간 이동 |
|--------------------|-----------------------------|-----------------------------|-----------------------------|
| | (1) | (2) | (3) |
| 과거 거주지역 평균 | 0,190 (0,241) [1,210] | 0,324 (0,588) [1,382] | 0,121 (0,291) [1,129] |
| 연령 | 0,037*** (0,013) | 0,024 (0,019) | 0,051*** (0,020) |
| 연령제곱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 성별(남성) | 0,477*** (0,060) | 0,386*** (0,080) | 0,545*** (0,075) |
| 고등학교 졸업(더미) | 0,059 (0,107) | 0,044 (0,169) | 0,089 (0,136) |
| 대학교 재학 이상(더미) | 0,480*** (0,111) | 0,428** (0,174) | 0,539*** (0,141) |
| 가구소득 200~299만원(더미) | 0,066 (0,096) | 0,248* (0,136) | -0,086 (0,132) |
| 가구소득 300~399만원(더미) | -0,042 (0,093) | 0,132 (0,139) | -0,199* (0,113) |
|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더미) | -0,029 (0,104) | 0,098 (0,134) | -0,151 (0,137) |
| Constant | -1,385*** (0,355) | -1,223** (0,596) | -1,617*** (0,484) |
| 지역 고정효과 | Y | Y | Y |
| 연도 고정효과 | Y | Y | Y |
| 관측치 수 | 6,699 | 3,112 | 3,587 |

주: 소괄호안의 값은 (조사시기*지역) 기준으로 클러스터링한 강건 표준오차. 대괄호 안의 값은 오즈비. *** p<0,01, ** p<0,05, * p<0,1. 과거 거주지역은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역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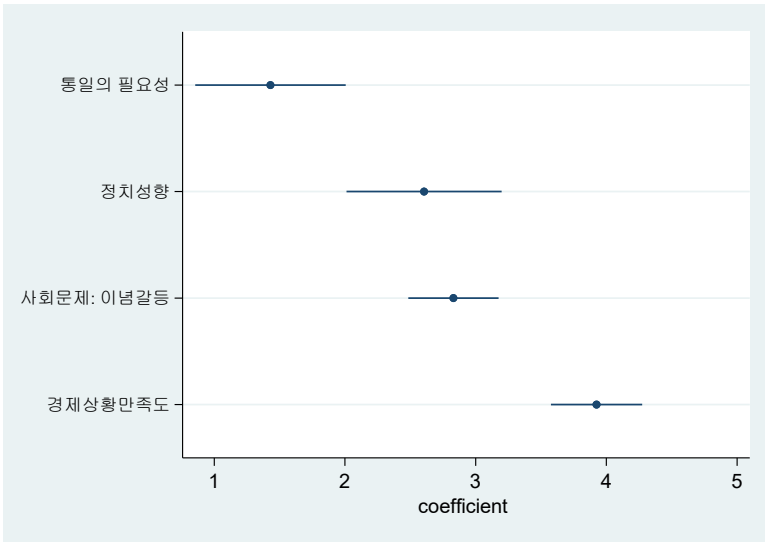
2. 통일 필요성 외 한국사회 관련 인식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통일 필요성 인식에 대해 거주지 인식과 개인의 인식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는 거주지 인식과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일 필요성 이외에 다른 인식에서는 거주지 인식과의 관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값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통일의식조사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외에도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고 있어 이 중 조사 초기부터 계속해서 파악해온 인식들에 대해 동일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³¹⁾

〈그림 2〉에 따르면 통일 필요성 인식과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거주지 인식과 개인의 인식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다만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비교했을 때 통일 필요성 인식은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거주지 인식과 개인의 인식 간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경제상황이 다르고 지역 내 거주자들은 비슷한 경제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거주지 내 경제상황 만족도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예상 가능한 결과이다.

31) 모든 변수는 더미변수로 한국사회 문제 중 이념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라는 네 개의 척도로 응답한 것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1의 값을 갖도록 변환하였다. 경제상황 만족도는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네 척도 중 만족한다고 답한 경우에 1의 값을 가지도록 정의하였고, 정치성향은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의 다섯 척도 중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경우를 보수적이라고 정의하여 1의 값을 갖도록 변환하였다. 이념갈등과 관련된 질문은 2019년까지만 조사되었으며, 기존 표본에서 해당 인식에 대한 응답이 존재하는 응답자만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그림 2〉 변수별 거주지역 평균 인식과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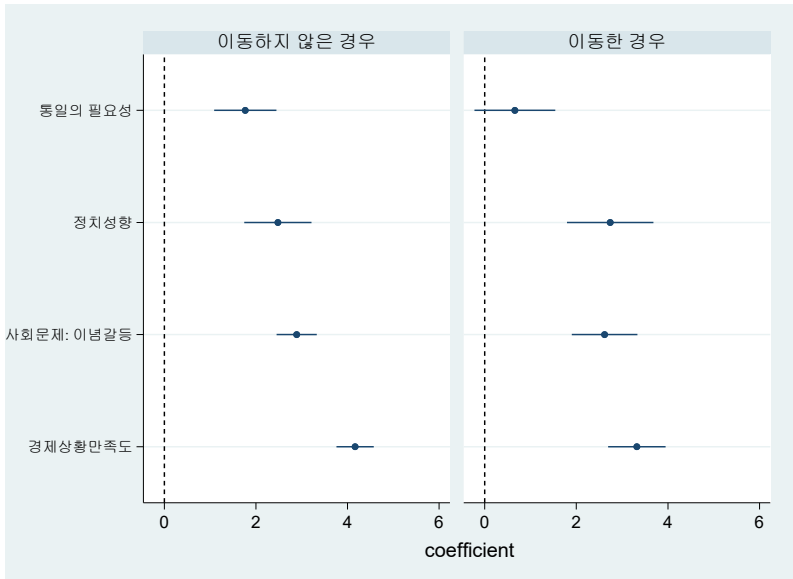


각 그래프는 변수별 추정치(로그오즈비)와 95% 신뢰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은 거주지 이동이 있었던 표본과 그렇지 않은 표본 각각에 대해 개인 인식과 거주지 인식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결과이다.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 거주지 인식과 개인의 인식 사이의 관련성이 비슷하거나 더 낮게 나타난다. 반면 통일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는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표본에서 지역의 평균 인식과의 관련성이 사라져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한국 사회 관련 인식에 비해 통일 필요성 인식에서 지역 평균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사회 관련 인식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미래에 얻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전환할 때는 할인이 된다. 즉 다른 한국 사회 인식 관련 변수

들과 달리 통일의 기대편익은 할인되기 때문에 지역의 평균 인식과의 관련성이 낮게 추정되었을 수 있다.

〈그림 3〉 이동여부에 따른 거주지역의 평균적 인식과의 상관관계 비교



각 그래프는 변수별 추정치(로그오즈비)와 95% 신뢰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만으로는 거주지 인식이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먼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개인의 준거집단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가용한 자료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거주지를 준거집단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거주지 정보 또한 시도단위 수준까지만 파악이 가능해 집단 구성원 간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고려하기에는 거주지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

제가 존재한다. 또한 물리적 거리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정의된 준거집단이 통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거주지 인식과 개인 인식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거주지는 무작위로 정해지기보다는 선택에 의한 결과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경향이 존재하고 이러한 특성이 통일 필요성 인식과 관련이 있다면 실제로는 통일 필요성 인식이 각 개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에도 거주지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혹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충격에 노출되면서 이 충격의 영향이 거주지 인식과의 상관관계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외에도 통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외생적 특성이 존재한다면 이로 인한 영향이 거주지 효과와 혼재될 수도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일 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지의 인식과 개인의 인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동일한 조사 시기에 같은 지역에 거주했던 다른 응답자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평균 인식을 거주지의 평균 인식으로 정의한 뒤 개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다음으로는 거주지와 접한 주변지역의 인식과 개인의 인식 간 상관관계를 추정하여 그 값을 현 거주지 인식과의 상관관계와 비교하고,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를 과거 거주지로 이용하여 과거 거주지와 현 거주지의 일치여부에

따라 현 거주지와 상관계가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분석 결과, 통일 필요성에 대한 거주지 인식과 개인의 인식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반면 주변지역 인식과의 관련성은 낮게 추정되어 개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은 주로 거주지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과거 거주지가 현 거주지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 거주지역의 평균적 인식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거주지의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거 거주지의 위치에 따라 현 거주지 평균 인식과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의 평균 인식과 개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거 거주지역의 평균 인식과의 관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거주지 인식과의 상관관계는 다른 한국사회 관련 인식들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 관련 변수는 대체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인 반면 통일 필요성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미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일의식조사 자료의 거주지 정보는 16개시도 기준으로만 존재해 그 범위가 다소 넓다. 만약 통일 의식에 대한 패널 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좀 더 자세한 거주지 정보 및 그 이동 과정을 알 수 있다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한 후의 통일 필요성 인식을 보다 정확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거주지의 평균 인식에 따라 응답자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통일 관련 인식에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좀 더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범수 외 공저, 『(2021)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구본상,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과 통일에 대한 태도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제30권 2호, 2020, 169~196쪽.

구본상·최준영, 「통일의식에서의 영호남 지역 차에 대한 경험적 분석」 『분쟁해결연구』 제17권 2호, 2019, 107~135쪽.

권재기, 「한국 국민의 통일의식 프로파일 탐색 및 예측」 『통일인문학』 제83집, 2020, 47~83쪽.

김병연, 「청년세대의 통일의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2019, 143~169쪽.

김병조,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 -통일정책에 대한 한 제언」 『통일과 평화』 제1권 2호, 2009, 63~102쪽.

_____,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 평화』 제7권 2호, 2015, 3~41쪽.

김영기, 「남한사회의 남북통일의 필요성 인식의 시계열적 변화와 영향 요인 차이」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8호, 2018, 707~717쪽.

김학재, 「통일·북한 여론과 정당지지 변화로 본 지속가능한 통일 정책의 조건」, 김범수 외, 『(2021)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206~241쪽.

백대현·이재완, 「통일의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통일편익과 비용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2호, 2015, 205~223쪽.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평화연구』 제22권 1호, 2014, 167~206쪽.

조진만·한정택,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6권 1호, 2014, 149~177쪽.

차재권,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갈등이 통일 및 대북 인식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83호, 2017, 215~238쪽.

최우선 외 공저, 「통일인식 차이의 원인」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2016, 84~112쪽.

- “The political influence of peer groups: experimental evidence in the classroom” *Oxford Economic Papers*, vol. 69, no. 4 (Oct. 2017), pp. 963-985.
- Chetty, Raj and Nathaniel Hendren, “The Impacts of Neighborhoods on Intergenerational Mobility I: Childhood Exposure Effec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33, no. 3 (Aug. 2018), pp. 1107-1162.
- Duflo, Esther and Emmanuel Saez, “The Role of Information and Social Interactions in Retirement Plan Decisions: Evidence from a Randomized Experi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8, no. 3 (Aug. 2003), pp. 815-842.
- Durlauf, Steven N., “Neighborhood Effects” in j. Vernon Henderson, Jacques-François Thisse, ed., *Handbook of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North Holland, 2004, pp. 2173-2242.
- Gentzkow, Matthew and Jesse M. Shapiro, “Ideological Segregation Online and Offlin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6, no. 4 (Nov. 2011), pp. 1799-1839.
- Glaeser, Edward L., Bruce Sacerdote and José A. Scheinkman, “Crime and Social Interaction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1, no. 2 (May 1996), pp. 507-548.
- Huckfeldt, R. Rober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Neighborhood Social Contex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3, no. 3, (Aug. 1979), pp. 579-592.
- Krosnick, Jon A. and Duane F. Alwin, “Aging and susceptibility to attitud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no. 3 (Sep. 1989), pp. 416-425.
- Ludwig, Jens, Greg J. Duncan, Lisa A. Gennetian, Lawrence F. Katz, Ronald C. Kessler, Jeffrey R. Kling, and Lisa Sanbonmatsu, “Long-Term Neighborhood Effects on Low-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Moving to Opportun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3, no. 3 (May 2013), pp. 226-231.
- Manski, Charles F. “Economic Analysis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4, no. 3 (Sep. 2000), pp. 115-136.
- Mayer, Susan and Christopher Jencks, “Growing Up in Poor Neighborhoods: How Much Does It Matter?” *Science*, vol. 243, no. 4897 (Mar. 1989), pp. 1441-1445.

- Oreopoulos, Philip, "The Long-Run Consequences of Living in a Poor Neighborhood,"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8, no. 4 (Nov. 2003), pp. 1533-1575.
- Perez-Truglia, Ricardo, "Political conformity: Event-study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100, no. 1 (Mar. 2018), pp. 14-28.

The Effect of Residential Regions on Perception on Unification in South Korea

Seo, Min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Byung-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Jung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the perception of an individual on the necessity of the Korean unification and the public opinion among residents in the same city or province where the individual lives. Using data from the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2007-2021, we find that the former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latter, but there is little effect of the public opinion among residents in the neighboring regions on the individual perception on unification.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public opinion in the current area becomes weak or insignificant if an individual moves from a city or province to another one before he/she reaches the age of fifteen. We also uncover that the magnitude of the effect of average opinion on unification within a region on the individual perception on the same issue is lower than such effects regarding issues directly related to the South Korean society. Our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opinion of an individual on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including support for inter-Korean unification is formed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people sharing the same living

environments.

Keywords: necessity of unification, social influence, residence effect,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서민진 (Seo, Minjin) _____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교육, 보건, 노동경제학이다.

김병연 (Kim, Byung-Yeon) _____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서 현재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북한경제, 체제이행, 경제발전 및 응용계량경제이다.

이정민 (Lee, Jungmin) _____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노동경제학과 응용미시 경제학이다.